[베리타스알파] 김영도 회장님 서면 인터뷰 질문&답변지

< 2025.8.7.(목), 경영지원실 홍보팀 >

서면 인터뷰 개요

□ 일　시 : 2025년 8월 12일(화) 회신
□ 게　재 : 2025년 9월　2일(화) 게재
□ 언론사 : 베리타스 알파(202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특집호 수록)
□ 방　법 : 서면 인터뷰(인터뷰지 작성 후 회신)
□ 대　상 : 전문대교협 김영도 회장(동의과학대 총장)

인터뷰 질의내용(5개)

1. 곧 취임 1주년이 되시는데, 그동안 이뤄낸 주요 성과 및 소회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취임과 동시에 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의 재구조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첫걸음은 연구소 기능 강화였습니다. 국내에는 고등직업교육을 전담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지난 1년간 연구소가 중장기 정책연구와 현안 대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체계를 갖추도록 개편했습니다.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력 끝에 여러 제도 개선도 이뤄냈습니다. 성인학습자의 입학정원 제한을 없애고, 9월 입학제를 도입했습니다. 전공기술석사 과정의 입학 경력 요건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지역별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허용하는 지역별 양성대학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전문대학이 전 생애 직업교육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대학의 가치와 역할을 한층 높이고, 협의회의 내실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2. 정부가 전문대학 및 고등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직업교육법 제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직업교육만을 위한 독립 법률이 없고,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일부 조항만 흩어져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전문대학은 청년부터 노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2018년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에 관한 법」을 제정해 국민 모두가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우리도 유럽, 미국, 대만처럼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3.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전문대학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비수도권 다수 지역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지산학 협력의 허브가 되어 지역 회복을 이끌어야 합니다. 당장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유출을 단기간에 막기는 어렵지만, 해외 유학생이 전문대학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착하는 정주형 유학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대학과 힘을 모아 양질의 일자리 마련, 청년 주거문제 해결,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평생직업교육 계좌제 지원 등에 나서야만 RISE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인공지능(AI)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의 준비 현황과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 전문대학 교육과정은 이미 AI/DX 및 AI 융합기술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활용능력은 모든 직무에서 필수적인 기본 역량이 될 것이며, 단순한 도구 사용을 넘어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 능력까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문대학 맞춤형 AI 교육 지

원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것은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됩니다. 전문대교협 역량개발연수원에서는 기초 AI 리터러시부터 산업별 특화 활용 교육까지 단계별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에도 많은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최신 AI 도구, 데이터 분석 기법, AI 윤리 등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신성장동력인 반도체, 바이오헬스, 친환경에너지, 미래차, 로봇, 스마트제조 등 신산업 분야별 인력양성 로드맵을 마련해 각 산업별 전문기관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AI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전직자 교육까지 아우르는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5. 전문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현장을 지키는 첨단기술인력, 그리고 인생 2막을 준비하며 새로운 일터에 도전하는 재취업 인력 모두를 전문대학이 책임져야 합니다. 전문대학은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자,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직업교육 플랫폼입니다.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 앞에서 전문대학은 더 이상 단순한 교육기관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지역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거점이자, 청년·중장년·노년 모두를 위한 경력 전환의 관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정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전문대학의 책무는 더욱 무겁습니다. AI·스마트제조·신재생에너지 등 고도화된 산업 현장을 책임질 스마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전문대학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저는 전문대학이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이자, 지역 산업체의 심장과 혈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RISE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 앵커대학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협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끝 >